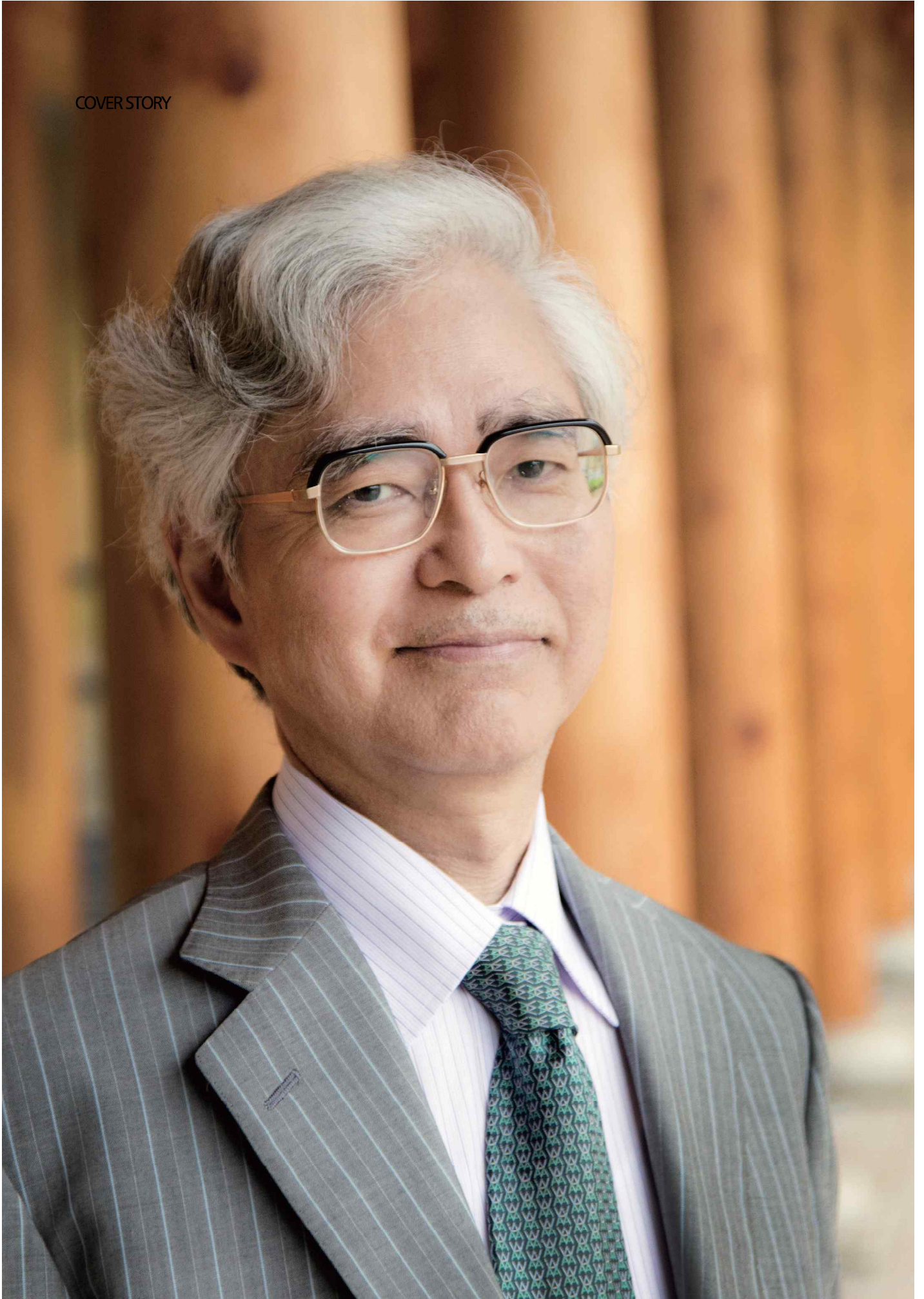


COVER STORY



성경의 원리로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

이나가키 히사카츠(稲垣久和)

⑥ 인터뷰 최태연(백석대 교수)

교수님의 신앙적 배경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개혁신교회(the Reformed Church in Japan)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베 개혁신학교(改革神學校)가 속한 교단이지요. 지금 이 교단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고 교회는 동경에 있는 온초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후, 네덜란드에 유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사이타마 대학과 동경메트로폴리탄 대학을 졸업한 후,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암스테르담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지요. 이 대학에서 저의 신학과 철학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되려는 소명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하하! 제가 속한 개혁신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은 적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점에서 전 철저한 카이퍼주의자(Kuyperian)지요. (웃음)

교수님은 동경기독교대학(Tokyo Christian University: TCU)에 계시지요? 지금 하시는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 대학에서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을 가르치고 있어요. 2008년에 신설된 기독교복지학과의 학과장이고, 대학부설 공립기독교연구소(共立基督教研究所, Kyoritsu Christian Institute)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복지학과는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고 공립연구소에서는 일본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발전시키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교수님이 전념하고 계신 공공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10년 전부터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공공철학(公共哲學)은, 정부의 공적(公的)영역과 개인의 사적(私的)영역 사이에 ‘공공(公共)의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 원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원리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동경대출판부에서 20여권의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 중 열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한 권 소개되었죠. 아마와키 나오시 교수의 책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예요. (성현창 교수 번역) 저는 기독교철학자가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성경의 원리로부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어요.

교수님의 철학은 정의(正義)의 실천에 강조를 두고 계시군요?

저는 철학에서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와 공공철학』(2004)과 『국가·개인·종교』(2007)라는 공공철학 이론서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 해방론』(2006)이라는 실천적인 책을 썼습니다. 일본정계 극우파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가 주장하는 국가신화적 의미와 공공성의 상실을 비판하고, 2차대전 참전 전사자를 위한 공공묘지를 제안한 바 있지요. 이 책은 일본에서 한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공공철학을 북



지에 적용한 『공공복지라는 실험』 (2011)을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일본에서도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개념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에 도예베르트(Dooyeweerd) 철학의 실재세계의 존재론을 도입했습니다. 자연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지 개념을 주장하는 거죠. 복지는 왜 타자를 돌봐야 하는가의 물음에서 출발해서 전인적인 사회복지(social work)로 나가야 합니다.

‘공공복지’개념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죠?

내가 타자를 돕고 돌보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마 28:19)이고, 또 하나는 “이와같이 하라(눅 10:37)” 실천명령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을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일본의 선교를 보더라도 복지라는 면이 결합되었을 때, 성공적이었죠. 1549년에 로마가톨릭 교회가 일본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시작했어요. 1859년 미국 장로교가 처음으로 선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에서 초창기 복지사업자는 모두 기독교인이었어요. 선교와 복지는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복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일은?

동경시와 협력해서 ‘바빙크 복지연구센터(Bavinck welfare study center)’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쟁 후 일본은 국가주도로 복지가 이뤄져, 공공 영역의 복지는 위축되었죠. 일본 헌법이 정부를 복지주체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 2000년에 개정되어 지금은 달라졌어요. 공공 영역의 복지를 인정하게 됐지요. 복지에 대한 교회 참여의 여지도 많이 생겨나서,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의 노인과 약자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교회의 미래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들려 주시지요.

일본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웃음) 지금 일본 개신교는 대표적인 두 교파인 일본기독교단과 복음주의교단이 협력하고 있어요. 저도 가톨릭교회와 정교회까지 포함하는 <일본기독교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지요. 일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돌봄의 사역이 일본인의 신뢰를 얻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기독교학교는 사회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일본교회 미래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경기독교대학(Tokyo Christian University)

일본 유일의 4년제 복음주의 기독교대학인 동경기독교대학(TCU)은 오랜 역사를 세 학교, 공립여자성서학원과 일본기독교신학교, 동경기독교단기대학이 1979년 하나로 통합하여 탄생했다. 이 대학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인문학을 교육하여 사람들을 연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학교 캠퍼스는 동경 도심으로부터 전철로 40분 정도 동쪽의 아름다운 전원도시인 지바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에서 동쪽으로 조금가면 나리타 신동경 국제공항과 태평양의 긴 해변이 나온다. 남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동경 디즈니랜드와 인공스키장이 눈에 들어온다. 캠퍼스 면적은 24,000평으로 옛날 중세 수도원의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학생은 오피스텔 수준의 기숙사 생활을 한다. 대학의 상징은 세 개 원형 돔으로 지붕을 이은 채플과 종탑인데, 매일 정오가 되면 청동으로 만든 종이 울린다. 이 채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 교실과 연구실, 대학본부 사무실, 5만 권의 기독교 장서가 있는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과 동아리실이 있고, 그 뒤편에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있다. 동화 속 수도원 같은 캠퍼스에서는 항상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동경기독교대학의 네 가지 모토는 복음주의(福音主義), 초교파(超教派), 세계선교(世界宣教), 실천적 신학교육(實踐的 神學校育)이다. 이 대학은 신학적으로 온건한 개혁주의의 토대 위에 모든 복음주의를 포용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

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하는 복음주의 신앙으로 목회

자와 선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와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로는 신학과, 국제기독교학과, 기독교복지학과가 있으며 졸업을 위해 132학점이 요구되고 졸업논문을 써야 한다. 대학교수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어학연수, 선교지 방문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하며, 미국의 바이올라(Biola)대학과 학생 교환을 한다. 대학부설 연구소로는 동아시아연구소, 공립기독교연구소가 있다. 신학과 목회학 박사 학위는 일본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연합한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ATA)를 통해 수여된다. 총장인 마사노리 구라사와 교수는 일본의 저명한 선교학자이다.



동경기독교신학대학원(Tokyo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동경기독교신학대학원은 동경기독교대학 내의 신학대학원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설교자와 복음주의신학에 기초해서 종교, 사상, 문화에 대한 복음을 입증하는 변증가, 인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정열적으로 선교를 담당할 선교사를 양성하는데 이 신대원의 목적이 있다. 목회전공과 선교전공이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해외선교사 수는 모두 40명이 넘는다. 신학생들은 졸업 후 3년 정도 전도사로 봉사한 뒤, 목사시험을 치루고 교단을 통해 각 교단별로 목사 안수를 받는다.